

# 탄탄한 철학에 기초한 냉혹한 풍자

진중권 지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1·2)》를 읽고

유시민 · 시사평론가

‘한 사람의 양치기와 같은 날 같은 모양으로 털을 깎이는 수천 마리의 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주의의 이상에 공감하면서도, ‘과격함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을 경우 그와 같은 전체주의 질서가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비효율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버린 ‘위대한 사회주의 실험’의 종말을 보면 유럽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이 ‘팔방미인 철학자’는 확실히 남다른 혜안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큰 힘을 쏟아 옹호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인격적 평등을 유린한 전체주의 질서는 사회주의 혁명운동 뿐만 아니라 그 정반대쪽에서도 나타났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파시즘이다.

## 진짜 자유주의자의 냉혹한 공격

극단주의 정치세력은 언제나 ‘적’의 단점과 오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자기의 사상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 극좌는 ‘자본주의 악덕과 제국주의 침략 분쇄’를 명분으로 삼아 자기네가 저지른 모든 형태의 범죄를 정당화했다. 극우가 ‘공산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저지’라는 명분 아래 합리화하지 못한 범죄는 없다. 그들은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고 믿는 점에서 배정이 맞는 호적수다. 그들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에서는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정치과정은 발생할 수 없다.

진짜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는 자기가 사는 사회의 극단주의 정치세력과 싸운다. 극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극우를 비판하는 것은 극좌의 이데올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극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극좌를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해방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짜 자유주의자들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와 북한 체제에 대해 별로 매서운 비판의 칼을 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극우에 대한 염증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우를 비판할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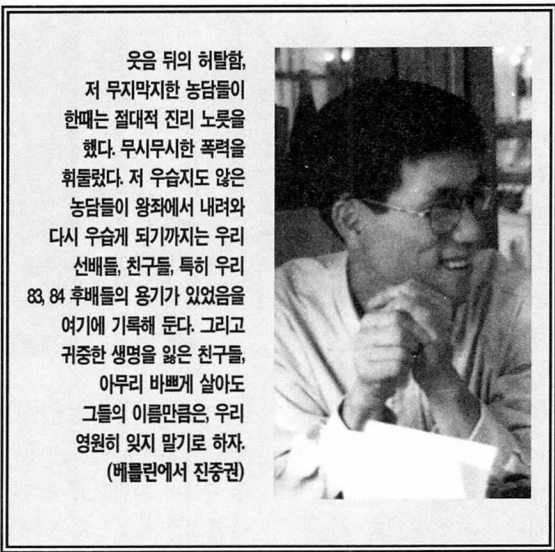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는 전체주의의 질서를 꿈꾸는 좌우의 극단주의에 대한 ‘진짜

자유주의자’의 인정머리 없이 냉혹한 철학적 정치적 공격이다. ‘붉은 바이러스’를 자임하는 이 ‘시간 많은 철학도’는 ‘리버럴리스트’가 아니지만 철저히 ‘리버럴’하다. 그는 철

저히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극우 파시스트 지식인’들의 ‘텍스트를 해체’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무엇인지를, 독일과 일본 파시스트의 텍스트와 조목조목 비교해가면서 친절하게 뜯어보여 준다.

파시스트의 이상향은 ‘한 사람의 양치기와 수천 마리의 양때로 이루어진 전체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우선 양치기는 ‘지도자의 천분을 타고난 영웅’이어야 하고(영웅주의), 양은 개체로서가 아니라 양떼 전체의 일원으로서만 생존의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국가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의 권리와 개성에 대한 억압의 합리화), 양치기의 ‘지도방침’에 대해 시비를 가리려는 양은 가차 없이 축출해야 하고(지식인 박해와 표현의 자유 박탈 정당화), 양양은 군말 없이 숫양의 꿈꾸니를 따라야 하며(가부장주의와 반여성주의), 양들의 불복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폭력적 처벌 시스템을 항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사상검증과 감시의 일상화, 국가 폭력의 옹호), 양들이 ‘자랑과 기쁨’을 가지고 양치기의 ‘지도’에 순응하도록 집단적 과대망상을 주입해야 한다(우월적 인종주의).

진중권은 노골적으로 전체주의 질서의 수립을 주창하는 지식인을 ‘거시(macro) 파시스트’로, 전체주의를 보완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퍼뜨리거나 자기가 몸담은 영역에서 그러한 질서를 복제하려는 지식인



웃음 뒤의 허탈함, 저 무지막지한 농담들이 한때는 절대적 진리 노릇을 했다. 무시무시한 폭력을 휘둘렀다. 저 우습지도 않은 농담들이 왕좌에서 내려와 다시 우습게 되기까지는 우리 선배들, 친구들, 특히 우리 83, 84 후배들의 용기가 있었음을 여기에 기록해 둔다. 그리고 귀중한 생명을 잃은 친구들, 아무리 바쁘게 살어도 그들의 이름만큼은, 우리 영원히 잊지 말기로 하자. (배를탄에서 진중권)

을 ‘미시(micro) 파시스트’로 규정한다. 이들은 활동 영역이 달라도 서로를 잘 알아보고 높은 친화성을 가지며,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권력자들과 결합함으로써

‘극우 파시스트 진영’을 형성한다. 진중권은 직접 권력을 공격하지 않고 파시스트 지식인을 공격한다. ‘김대중 정부’가 파시스트 권력이 아니라는 목시적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시점에서 극우 지식인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발호’를 용납할 경우 정치권력이 또다시 파시즘에 물들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은 여기가 거시 파시스트와 미시 파시스트 지식인들의 최대 거점인 탓이다.

## 파시스트 냄새맡기

이 ‘리버럴한 철학도’는 냄새를 잘 맡는다. ‘국가주의’와 ‘영웅주의’, ‘우월적 인종주의’와

‘반(反)지식인주의’를 선동하는 조감제와 이인화가 ‘거시 파시스트’로 ‘풍자와 야유’의 대상이 된 건 너무나 당연하다. 류근일과 이한우, 우중창 등 《조선일보》의 ‘일류기자’들을 한목음으로 처리한 것도 그렇다. ‘하느님의 안기부’를 자칭하면서 ‘공안정국의 항구화’를 주장한 박홍 신부, ‘가문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의 전도사’ 이문열이 ‘진중권 리스트’에 오른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황장엽과 조감제, 황장엽과 박홍을 ‘거시 파시스트’의 반열에 함께 세워두고 남의 거시 파시즘과 북의 주체사상 사이의 친화성을 논증한 것은 진짜 ‘리버럴한 철학도’가 아니고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독일에서 5년 동안 사격술을 익힌 진중권의 ‘까치발50’은 박성조·송복 등 《조선일보》의 ‘최장집 죽이기’에 가담한 ‘학자’들도 여지없이 맞힐 만큼 사정거리가 길다. 이른바 ‘박정희 재평가’를 두고 조감제와 어울린 잡지 《전통과 현대》의 ‘젊은 석학들’과 그들을 이끄는 ‘도올’ 김용옥의 ‘미시 파시스트’적 행태에 대한 ‘김용옥식 풍자’는 이 철학도가 파시스트의 냄새를 맡는 데는 가히 ‘영웅적 천분’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중권은 이 책을 ‘학술적 비판이 아닌 문학적 풍자’로 읽어 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진중권의 ‘텍스트를 해체’해서, 배를 잡게 만든 ‘건강한 풍자’의 밑바탕에 놓인 탄탄한 철학적 경험적 기초를 읽는 재미도 해학적 문장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못지않다. 다만 종종 등장하는 라틴어 문구를 ‘해체’하는 것은 독자들의 능력 밖이기 때문에, ‘소우주 진중권’의 개성의 발현으로 인정하고 그냥 넘겨도 좋을 듯하다. ◆

개마고원/A5신/각 300면 내외/각 8000원

